

“범인 선처해달라” 기초생활 할머니의 배려

동생이 맡긴 193만원 택시에 놔두고 내려 일주일만에 검거된 운전기사 되레 위로 “밥은 꼭 챙겨먹어라” 5만원 손에 쥐어 줘

자신의 가방을 가져간 범인과 대면해 화를 내기는커녕 사례비를 건네고 경찰에 거듭 선처를 호소한 할머니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임대아파트에 홀로 살며 기초생활비로 생계를 꾸려온 할머니는 자신의 돈가방을 가져간 범인에게 “살을 중하게 여기세요”라며 용기를 줬다. 할머니는 경찰에게도 “찾아줘서 고맙다”며 사례비를 건네기도 했다.

66) 할머니가 가방을 잃어버린 것은 지난 1일 오후. 할머니는 이날 4시께 광산구 우산동 S아파트 앞에서 하모(53)씨의 택시를 탔다. 그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는 길이었다.

택시에서 내려 동물병원에 들어간 할머니의 얼굴은 금세 파랗게 질렸다. 무릎 위에 안고 있던 고양이를 챙겨 내리느라 택시 뒷좌석에 돈이 든 가방을 두고 내린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문을 열고 병원 밖으

로 나섰지만 택시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가방을 주웠다는 연락도 오질 않았다. 할머니는 경찰서를 찾아가 “꼭 가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가방 안에는 현금 193만원과 통장이 들어있었다. 여동생이 사흘 전 할머니에게 대신 통장에 입금해달라고 맡긴 돈이었다.

동생의 돈을 잃어버린 할머니의 속은 타들어갔다. ‘왜 미리 입금하지 않았을까. 왜 두고 내렸을까’라며 수천 번 후회했다. 돈을 갖고 출행하던 택시기가 원망스러웠다. 잠도 못 이루고 시름시름 앓기까지 했다.

그렇게 일주일이나 흘렀을까. 지난 9일 잃어버린 돈을 포기해야했던 맘을 먹고 있

을 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돈가방과 함께 범인을 붙잡았다는 소식이었다. 가방에는 돈과 통장이 그대로였다.

할머니 앞에 선 택시기사 하씨는 “할머니의 행색을 보니 넉넉한 형편이 아닌 것 같아 차마 쓸 용기가 안 났다.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부터 가져갈 맘은 없었다. 그런데 푹푹돈을 보자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고개를 떨궜다.

고개를 숙인 하씨는 할머니의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에 더욱더 고개를 조아렸다. 할머니는 “이봐요, 택시 양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사례를 받는 거예요”라며 사례비 5만원을 건네는 것이었다. 지켜보던 경찰도 깜짝 놀랐다. 할머니는 “기사님 덕에 잃어버린 돈을 온전히 찾아 동생에게 진 마음의 빚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며 “살을 중하게 여겨야해요”라며 도리어 하씨를 다독였다.

이어 “내 막내 동생 또래나 되었는데 오죽 힘들었으면 이랬을까. 이 갈로 밥도 챙겨 먹고 기운을 좀 내라”며 하씨에게 돈을 쥐어줬다. 그러곤 “어려운 사정이 있어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광산경찰서 양태영(50) 경위는 “경찰 생활 25년 만에 이런 일은 여태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죄를 짓고 불쌍려 처벌을 받았지만 하씨도 마음의 부담을 좀 덜었으리”이라며 “이런 할머니가 계신 걸 보면 세상이 아직 살만 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택시에 탄 할머니가 두고 간 돈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하씨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 박기용기자 pbxer@kwangju.co.kr



불우이웃에 白米 전달 11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이웃사랑 나눔 후원품 전달식'에 참가한 공무원과 주민 100여 명이 저소득층에 전달할 백미·천일염을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타성에 빠진 ‘자판기식’ 법 집행 배격할 것” “국민 섬기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 되겠다”

신임 김희관 광주고검장

김희관(52·사법연수원 17기) 신임 광주고검장은 11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국민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모든 일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야 한다”면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이고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자판기식 법 집행’을 배격하고 세상은 이치와 사람 사는 정리에 부합되는 것까지 헤아리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음표가 그려진 악보를 읽으며 음악을 감상하는 게 아니다”고 언급한 뒤 “국민이 법조문을 읽으며 법을 느끼고 감상하는 게 아니다. 법을 연주, 집행하는 사람 통해 법을 감상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을 연주, 집행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면 아무리 법조문 자체가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국민에게 박수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신 출신인 김 고검장은 전주교과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의정부지검장, 부산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임 김해수 광주지검장

김해수(55·사법연수원 18기) 신임 광주지검장은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국민의 잣대로,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로 지역민들에게 ‘믿음직한 검찰’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또 “지역의 구조적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아 검찰이 지역에서 믿음직한 사회의 보루가 돼야 한다”며 “특히 다음달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전직원이 합심해 공정 선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오는 3월 개통되는 호남선 KTX와 7월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과 관련, 안전 문제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 청정지대 광주”를 위한 검찰의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김 지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으며 서울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대검찰청 강력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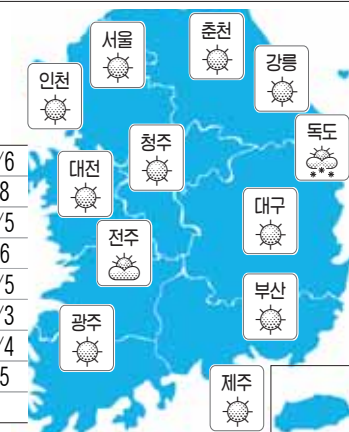
해돋이 07:23 달뜨기 00:49
해질녘 18:11 달지기 11:45

오후엔 찬바람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았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2/6	보성	맑음	-3/6
목포	구름많음	-1/5	순천	맑음	0/8
여수	맑음	1/7	영광	구름많음	-3/5
나주	맑음	-3/6	진도	구름많음	0/6
완도	맑음	0/6	진주	구름많음	-3/5
구례	맑음	-3/7	군산	구름많음	-3/3
강진	맑음	-2/6	남원	구름많음	-4/4
해남	구름많음	-2/6	홍산도	구름많음	2/5
장성	맑음	-4/5			



바다 날씨

시해	남해	남해 서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남해	남해	남해	북서~북	0.5~1.5	서~북서	1.0~2.0
남해	남해	남해	북서~북	1.0~2.0	서~북서	1.5~2.5
남해	남해	남해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남해	남해	남해	서~북서	1.0~2.5	북서~북	1.5~2.5
남해	남해	남해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50
빨래	70

주간 날씨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	☀	☁	☁	☁	☀	☁
-3/6	-1/10	0/10	5/8	0/9	-1/10	1/10

대화아파트 옹벽붕괴 차량 피해보상 심의 착수

광주 대화아파트 인근 도로 옹벽붕괴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광주시 남구는 옹벽 붕괴 피해 차량 보상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주민 대표 2명, 변호사, 구의원,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남구는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고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심의위원회는 손해사정인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상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자기차량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미가입한 피해 차량 소유자다.

차량 소유주에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는 이후 남구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옹벽 붕괴로 파손된 차량은 오도바이 10대를 포함 총 39대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가 보유한 재산관리금, 예비비 등을 동원해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보성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금품·향응 제공 의혹

경찰, 첩보 입수 수사 나서

보성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보성경찰 등에 따르면 보성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 이상 후보 A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보성의 한 마을회관에서 부녀회장에 현금 20만 원을 건네는 등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부녀회·이장단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부녀회장과 이장 등 금품과 향응을 받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0억 한정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